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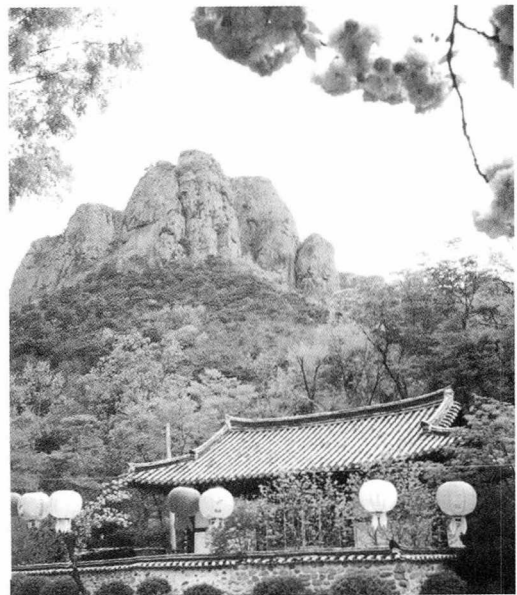
주왕산이 어떻게 국립공원이 되었나

이상룡 | 본지 편집 주간

지금으로부터 꼭 32년전 일이다. 그 당시 필자는 서울 충무로에서 상업사진연구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고향인들의 친목 모임인 재경청송군향우회 상임부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당시 향우회장은 이동화(李東和)장군으로 박정희대통령과 육사 동기이며 중장으로 군수기지사령관, 국방대학원장 등 군 요직에 재직다가 예편되어 철도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가 국민대학교 재단이사장으로 부임 했는데 재단사무실은 국민대학교 내에 있는 지라 시내에서 거리가 멀어 시내 사무실을 처음 마련한 곳이 충무로(영화의 거리)였다.

당시 필자의 사무실 길 건너 맞은편이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장군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상룡사장 오늘 점심약속 있어” 라고 하길래, 없습시다라고 하니 “그럼 나하고 점심이나 같이 하지” 예 하고 그의 사무실로 갔다. (이장군은 필자보다 꼭 9년 연배) 자리에 앉자마자 “지금 청송(고향)에서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뭐가 있나,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터이니”, 갑자기 묻는 말에 언뜻 생각이 나지 않기도 했으려니와 금방 떠오르지 않아 무엇이 있는가 하다가 떠오른 것이, “주왕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 라고 묻기에 “국립공원 허가는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당시 국립공원은 건설부 소속

이었음. 지금은 환경부)” 라고 했더니 “건설부면 김재규장관이니 잘 되었다.(김재규장관과 육사동기) 그럼 내가 김장관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터니 이사장이 주왕산에 대한 브리핑을 할 수 있겠나” 하지요, 제가 쓴 주왕산에 대한 책자도 있고 슬라이드 필름과 사진 자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 후 약 1주일 쯤 되었을까 이동화장군께서 전화가 왔다. 오늘 김장관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

니까 주왕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신이 나서 달려갔다.(중간 이야기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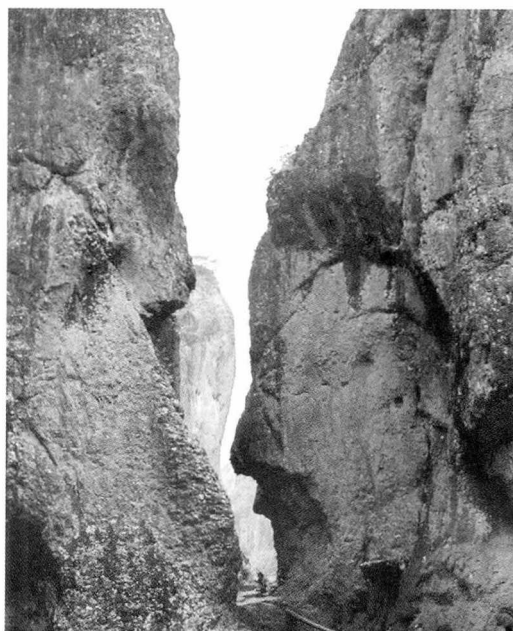
이동화장군은 건설부장관실에 들어가 앉자마자 첫마디가 느닷없이 “김장관, 우리 고향에 선물하나 안주겠어요” 라고 했다. 그러자 김장관이 이외라는 듯 “선물이라니 무슨 선물” 그때 이장군이 “우리 고향에 있는 주왕산 알지” “알고있지(김장관)” “그 주왕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줘요” “그래요(김장관)” 하더니 비서에게 담당국장 “(국토관리국장?) 들어오게 해요” 라고 했다. 국립공원 담당국장이 들어서자, 김장관이 “국장 저 경북에 있는 주왕산이 국립공원이 될 수 있나요”, 하니까 국장말이 “그렇지 않아도 경북도에서 여러번 국립공원 신청을 해왔습니다만 그때마다 비토(Veto)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장관리 “왜 비토 되었는데” 하고 물으니 국장 말이 “국립공원이 될려면 일정한 규정의 평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 평수가 모자라서입니다” 라고 했다. 그때 이장군이 “그렇다면 컴퍼스(Compass)로 빙 둘러서 평수를 크게 잡아넣으면 될 것 아니요” 라고 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장관이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국장 되도록

해 봐요 라고 명령조로 지시하자 담당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경북도에 전통(전화로 통보하는 것)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장관실을 나갔다.

※ 전통이란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사안이 급한 일은 전화로 하달하는 것을 줄여서 전통이라고 했다.



그날 필자는 바로 고향군수(당시 현대진군수)에게 이 사실을 전화로 알려줬다. 그 얼마 후에 현대진군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경북도에서 주왕산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우리군에는 자료가 별로 없어 고민입니다. 듣자하니 이선생이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좀 보내 주었으면 하길래 나에게 있는 몇 가지 자료를 보내 주었다.

그 얼마 후 현대진군수로부터 전화가 왔다. “저 현군수입니다” 하길래 난 고향에서 하는 전화인 줄 알고 우리 고향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라고 했더니 “지금 서울역입니다” 라는 대답이다. “제가 서울역으로 나갈까요” 하니 “아니오, 지금 건설부에 가서 주왕산에 대한 브리핑(Briefing)을 하고 나

와서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니까 그날 현군수가 건설부에 들어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 셈이다. 경북도에서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한 주왕산 국립공원 승인이 드디어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리하여 1976년 3월 24일 우리 나라 1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그때의 그 기쁨과 성취의 보람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며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그 고장 출신의 큰인물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처럼 애항심이 남달랐던 이동화장군은 작년(2006년 3월 29일) 81세로 타계, 대전 국립묘지에 잠들었으니 그분의 그 덕망과 인자하신 인품이 다시 그리워진다.

국립공원이 됨으로써 그 지역에 미친 영향

1. 자갈길을 아스팔트(asphalt) 포장도로로

경북에서도 가장 오지(奧地)인 청송에는 도로(국도 및 지방도)가 모두 자갈길(비포장)이었다. 한여름에도 비포장길을 달리는 차가 먼지 때문에 창문을 꼭꼭 닫고 먼지 속을 달려야 했으니 차의 속도는 말 할 것 없이 느림보였다. 그런 험한 길을 달리는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 이곳 주민들은 차길이 하루속히 포장되어 편안한 여행을 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이 고장 사람들은 포장된 도로 위를 달



리는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그지 없었다. 그러던 중 군민들로부터 재경청송군 향우회로 도움을 요청해 왔다. 당시 필자는 향우회 상임부회장으로 심부름을 하던 때라 회장단 회의를 열어서 고향 아스팔트 깔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당시 회장은 윤옥영 장군 추진위원장은 이동화장군)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는데 그 명분을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첫째 국립공원이 있는 곳인데 아직까지 비포장도로이니 국가의 수치가 아닌가 이곳은 외국인들도 수 없이 찾아오는 고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타당성을 주장하고 속히 도로포장도 해 줄 것을 줄기차게 로비활동(lobby 活動)을 한 결과 본래의 예정보다 3년을 앞당겨 포장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1992년 준공)

2. 청송교(靑松橋) 개축(改築) 공사에 추경예산 지원 획득

당시 통행되고 있던 청송 읍내에 놓여 있는 청송교가 낡아서 헐어내고 다시 개축공사를 할 때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이것 역시 재경청송군향우회에서 중앙부처에 기금 신청을 요청하여 그 어려운 추경예산 5억원을 받아 내는 성과를 거둔 때도 역시 핑계는 국립공원 주왕산을 찾는 관광객이 다니는 중심도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주왕산 국립공원 이름을 판셈이다.(1987년 3월 30일 준공, 길이 180m, 폭 13.5m, 높이 5m)

